<h1>나 혼자만 레벨업-30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w1fa780ef6e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30화</p>  
<p>진우는 차분히 대답했다.</p>  
<p>"정신을 차려 보니 멀쩡해져 있더라고요.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."</p>  
<p>송치열은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10여 년 전 게이트란 것이 나타난 이후로 세상에는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.</p>  
<p>헌터라 불리는 각성자들이 좋은 예다.</p>  
<p>S급의 치유계열 헌터들은 레이드 중 온몸이 찢긴 환자도 숨만 붙어 있으면 원래대로 복구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의식을 잃은 사이 높은 랭크의 치유계열 헌터가 와서 진우의 상처를 치료했다면?</p>  
<p>그러니 잘렸던 다리가 다시 붙는 일쯤이야 이변 측에도 끼지 못했다.</p>  
<p>"젊은 사람이 불구가 되면 안 되지. 다행이구먼, 정말 다행이구먼."</p>  
<p>송치열은 자기 일처럼 가슴을 쓸어내렸다.</p>  
<p>문득 진우의 시선이 송치열의 왼쪽 팔로 옮겨 갔다.</p>  
<p>소매의 끝이 휑하니 비어 있었다.</p>  
<p>송치열은 허허 웃으며 왼팔 어깨 부근을 만지작거렸다.</p>  
<p>"이건 신경 쓰지 말어. 헌터가 사냥을 하다 보면 다칠 때도 있고 그런 법이지. 여태까지 사고가 없었던 것이 운이 좋았던 것이여."</p>  
<p>송치열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,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다.</p>  
<p>"어머, 저기..."</p>  
<p>"불쌍하게도... 마수한테 당한 거겠죠?"</p>  
<p>지나가던 아줌마들이나 학생들이 송치열의 펄럭이는 소매를 보고 속닥거렸다.</p>  
<p>신기한 듯 아예 대놓고 쳐다보는 아저씨도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말했다.</p>  
<p>"자리를 옮길까요?"</p>  
<p>정육 코너 주변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.</p>  
<p>시선이 부담스러웠던 송치열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진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더 있었다.</p>  
<p>"그게 좋겠구먼."</p>  
<p>두 사람이 사람이 적은 곳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걷는 동안 송치열은 뭔가 이질감을 느꼈다.</p>  
<p>'성 씨의 발소리가...'</p>  
<p>진우의 걸음이 너무 가벼웠다.</p>  
<p>바로 옆에 서 있는 데도 기척을 읽기가 힘들었다.</p>  
<p>어째서일까?</p>  
<p>지금 이 자리에서 진우와 싸워도 손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기묘한 느낌마저 들었다.</p>  
<p>자신은 C급, 진우는 E급인데도 말이다.</p>  
<p>'내가 무슨 생각을...'</p>  
<p>송치열은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.</p>  
<p>성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.</p>  
<p>아니, 해야 할 말이 있었다.</p>  
<p>송치열은 한적한 곳에서 멈춰 섰다.</p>  
<p>진우도 따라서 멈추었다.</p>  
<p>송치열이 진우를 돌아보더니 진우가 말리기도 전에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성 씨, 정말 고맙구먼."</p>  
<p>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니 진우의 기분도 숙연해졌다. 송치열은 진우가 만류하는데도 고개를 들지 않고 말을 이어 갔다.</p>  
<p>"나 때문에 11명이 죽었다면, 자네 덕분에 여섯 명이라도 살아남은 것이여. 내 책임이 가장 크니까 거기 있었던 모든 헌터들을 대신해 내가 인사하는 것이구먼."</p>  
<p>송치열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진심이 묻어 나왔다.</p>  
<p>진우도 이내 송치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.</p>  
<p>상황은 조금 난처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.</p>  
<p>뭐라고 할까, 뿌듯한 기분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언제까지 어른을 이런 식으로 세워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.</p>  
<p>"아저씨,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."</p>  
<p>진우가 송치열을 일으켜 세우려는데, 마침 송치열의 폰에 전화가 걸려왔다.</p>  
<p>송치열은 진우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쪽 주머니에 있던 폰을 꺼내 들었다.</p>  
<p>"예."</p>  
<p>전화를 받던 송치열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"알겠습니다. 곧 그리 가지요."</p>  
<p>송치열은 전활르 끊고서 말했다.</p>  
<p>"나는 그만 가 봐야 할 듯허이."</p>  
<p>개인적인 볼일이 있다는 말투였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이미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.</p>  
<p>감각 스탯이 높아진 만큼 청각 또한 예민해진 상태였다.</p>  
<p>방금 전화는 처리해야 할 게이트가 있다는 헌터 협회의 요청이었다.</p>  
<p>혹시나 진우가 따라나설까 봐,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진우가 레이드에 참가했다 또 다칠까 봐, 송치열은 일부러 통화 내용을 숨긴 것이다.</p>  
<p>진우가 직설적으로 물었다.</p>  
<p>"협회 전화죠?"</p>  
<p>송치열이 머뭇거리다 대답했다.</p>  
<p>"그것이... 다 들렸는감?"</p>  
<p>협회에서 레이드를 할 때는 근방에 사는 협회 소속 헌터들을 모두 불러 들인다.</p>  
<p>송치열에게 전화가 왔다는 말은 당연히 진우의 집에도 연락이 갔다는 뜻이었다.</p>  
<p>기다리고 있던 소집 명령이었다.</p>  
<p>진우가 짤막하게 대답했다.</p>  
<p>"저도 가겠습니다."</p>  
<p>"자네..."</p>  
<p>진우를 바라보는 송치열의 눈에 이채가 떠올랐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집합장소에 도착했다.</p>  
<p>주택가와 밀접한 도로에 생성된 게이트라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다.</p>  
<p>그러나 구경꾼들은 거의 없었다.</p>  
<p>협회가 맡는 게이트들은 대개 발견된 지 수일이 지나 위험한 상태가 대부분이고, 게이트 주위에 있어 봤자 헌터들이 싸우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가끔 개구쟁이 꼬마들만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경찰에게 쫓겨 달아날 뿐이었다.</p>  
<p>탁.</p>  
<p>택시의 문이 닫혔다.</p>  
<p>택시에서 내린 진우와 송치열은 헌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 경찰들의 제지를 받았다.</p>  
<p>"신분증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?"</p>  
<p>송치열이 지갑을 꺼내 자격증을 보여 주었다.</p>  
<p>"C등급 헌터 송치열, 이쪽은 동료인 성진우올시다."</p>  
<p>신분증의 사진과 송치열의 얼굴을 대조해 본 경찰들이 자격증을 돌려주며 길을 터 주었다.</p>  
<p>"실례했습니다, 헌터님."</p>  
<p>"수고들 허시오."</p>  
<p>송치열은 경찰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. 진우가 그 뒤를 따랐다.</p>  
<p>게이트 앞에는 협회 소속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동그란 안경을 쓴 젊은 여자였다.</p>  
<p>그녀가 두 사람을 보고 다가왔다.</p>  
<p>"송치열 헌터님! 어? 그런데 성진우 헌터님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전화 안 받으시더니."</p>  
<p>송치열이 대신 대답했다.</p>  
<p>"같이 있다가 연락받고 왔구먼."</p>  
<p>"아, 그러셨어요? 전 성진우 헌터님이 또 전화 피하시는 줄 알았죠."</p>  
<p>직원이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.</p>  
<p>예전에는 정말로 그랬다.</p>  
<p>레이드를 하다 크게 다친 이후에는 던전에 가는 게 무서워서 아예 폰을 꺼 버린 적도 있었다.</p>  
<p>협회의 요청에 세 번 이상 불응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와야 했지만 말이다.</p>  
<p>옛 생각에 진우는 씁쓸히 웃었다.</p>  
<p>"참, 저기 다른 헌터분들과 와 계셔요. 두 분 가서 이야기들 나누셔요."</p>  
<p>직원이 가리킨 곳에는 먼저 온 헌터들이 모여 있었다. 헌터들이라고 해 봐야 두 사람이 전부.</p>  
<p>큰 사고가 난 뒤라 인원이 확 줄어 있었다.</p>  
<p>오는 길에 아저씨에게 듣기로는 그때 희생당한 헌터들 말고도 사고의 여파로 은퇴를 결심한 헌터가 여럿이라고 했었다.</p>  
<p>'그중 한 명이 주희 씨고.'</p>  
<p>진우가 주위를 둘러봤으나 주희는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와 송치열이 가까이 다가가자 헌터 두 사람이 멋쩍은 듯 시선을 피했다.</p>  
<p>진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.</p>  
<p>'그럴 만도 하지.'</p>  
<p>거기 있던 사람들은 혼자 살자고 달아났던 김상식과 다리 잃은 자신을 내팽개쳤던 남자 헌터였다.</p>  
<p>대면하기 껄끄러울 수밖에.</p>  
<p>"저기, 성 씨..."</p>  
<p>뒤늦게 인사라도 하려던 김상식이 진우의 싸늘한 시선에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"..."</p>  
<p>김상식은 입을 꾹 다물고 눈치를 살피다가 슬쩍 자리를 피했다.</p>  
<p>멀찍이 떨어진 그는 진우 쪽을 힐끔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'저 인간이 내가 알던 성진우 맞나? 눈빛이 무슨 마수 같네, 마수.'</p>  
<p>김상식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.</p>  
<p>아니나 다를까, 팔뚝에는 어느새 닭살까지 돋아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살기 어린 시선을 거두었다.</p>  
<p>다행히 유진호와 달리 김상식은 눈치가 빨랐다.</p>  
<p>눈을 한 번 마주친 뒤론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.</p>  
<p>앞으로도 계속 그래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.</p>  
<p>"성 씨."</p>  
<p>옆에 있던 송치열이 어딘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"저기 오는구먼."</p>  
<p>진우는 송치열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그런데 고개가 미처 다 돌아가기도 전에.</p>  
<p>"진우 씨!"</p>  
<p>뭔가 부드러운 것이 와락 안겨 들었다.</p>  
<p>"주희 씨?"</p>  
<p>진우가 당황하는 사이 주희가 울먹거리며 진우의 몸 여기저기를 살폈다.</p>  
<p>"괜찮아요? 어디 다친 덴 없어요? 어, 다리? 진우 씨 다리가 어떻게?"</p>  
<p>주희가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진우의 얼굴과 다리를 번갈아 보았다. 온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송치열이 보여 주었던 반응과 다르지 않았다.</p>  
<p>"아, 그건."</p>  
<p>진우가 말을 꾸며 대려는 찰나.</p>  
<p>"아주 뜨겁네, 뜨거워!"</p>  
<p>진우와 주희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나온 방향으로 향했다.</p>  
<p>멀리서 웬 사내가 두 사람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 대고 있었다.</p>  
<p>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사내였다.</p>  
<p>'근처에서 영화 촬영이라도 있는 건가?'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, 승합차 앞 좌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.</p>  
<p>그는 죄수복을 향해 나직이 경고했다.</p>  
<p>"입 다물어."</p>  
<p>죄수복은 먼 곳을 바라보며 딴청을 피웠다.</p>  
<p>그러자 정장 입은 남자가 승합차 안을 살펴보는 사이 기다렸다는 듯 주희를 향해 윙크를 날렸다.</p>  
<p>진우의 미간이 구겨졌다.</p>  
<p>이윽고 승합차에서 두 사람이 더 나왔다.</p>  
<p>모두 남자였다.</p>  
<p>특이한 점은 그들 전부 죄수복을 입은 채로 수갑을 차고 있다는 것이었다.</p>  
<p>정장 입은 남자는 죄수복 사내 세 명을 이끌고 협회 직원에게 다가왔다.</p>  
<p>협회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.</p>  
<p>"이제 오셨네요."</p>  
<p>"죄송합니다.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서."</p>  
<p>협회 직원이 내민 서류에 정장 입은 남자가 하나씩 사인을 시작했다.</p>  
<p>그동안 협회 직원은 헌터들을 불러 모았다.</p>  
<p>"저분들은 오늘 헌터님들하고 같이 레이드를 하게 된 대체 복역자분들이에요."</p>  
<p>헌터들의 표정이 굳어졌다.</p>  
<p>김상식이 앞으로 나섰다.</p>  
<p>"대체 복역자? 지금 우리보고 범죄자들하고 레이드를 뛰라는 거요?"</p>  
<p>죄를 지은 헌터들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.</p>  
<p>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채울 것인가, 협회에 협조하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.</p>  
<p>대부분은 형량 줄이기를 택하는데, 이런 죄수들을 '대체 복역자'라 했다.</p>  
<p>직원이 헌터들에게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죄송해요, 죄송해요. 우리 구역 헌터분들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요. 협회에서도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대요. 대신 감시과 헌터분도 함께하시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."</p>  
<p>김상식이 의슴런 눈초리로 물었다.</p>  
<p>"감시과 헌터분도 같이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